

#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소식 (2022년 2/4분기)

2022년 6월 29일

어제도 늦은 밤 새벽 1시까지 스페인어로 된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 주일학교 교재 5권(교사용, 청장년용, 중고등부용, 아동부용, 유치부용)의 일부 편집된 내용을 수정, 교정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교정했던 내용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것을 보면 이 사역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 교재 5권은 이전에 출판된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재 1-4권보다 더 많은 수고와 중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 출판을 위해서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재 집필 위원 여러 목사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고, 그 와중에 교재 5권을 위해 새로운 집필위원으로 위촉되어 수고하시던 엘리아 펠리즈(Ángel Eliacin Feliz) 목사님의 갑작스런 소천 등으로 인해 집필이 늦어졌습니다. 엘리아 목사님은 제가 오랜 세월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신학교 졸업 후 제2바라오나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동역했던 귀한 목사님이었기에 그의 소천 소식은 저를 포함한 총회에 속한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깊은 마음의 아픔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총회 총무님이신 미겔 앙헬 깐꾸 목사님과 소천하시기 한시간 전 네이바 교회 건축 3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전화로 회의를 가진 뒤 일하시는 곳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소천 했기에 저희 모두에게는 그의 소천 소식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모두 큰 슬픔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재 5권이 늦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또 다른 이유는 도미니카공화국 크리스찬연맹(La Alianza Cristiana Dominicana)에 속한 여성들이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 달라는 집회를 대통령 궁 앞에서 가졌는데, 그 집회를 이끈 목사님이 바로 교재 집필위원인 베타니아 피게로아(Revda. Betania Figueroa) 목사님이었고, 그 집회 내용이 총회적으로 문제가 됨으로 인해 집필된 원고들의 취합이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재 5권에 대한 집필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되었고, 이제 편집과 함께 최종 교정 등의 출판 인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총회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 대상은 전 연령층의 성도들입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는 청장년용, 중고등부용, 아동부용, 유치부용, 그리고 교사용으로 구분되어 출판이 되었고, 전국 교회에서 주일마다 귀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성경공부 교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신학생들이 이제는 총회의 중진 목사님으로, 노회장, 총회장,

총회 임원 등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교회 교육에 오랫동안 교사로서 봉사하셨던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교재를 집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어 혹은 영어 성경공부 교재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현지 목사님들이 직접 집필하신 것이어서, 이 교재 속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문화, 사회, 특별히 교회의 문화, 총회의 교리 등이 잘 담겨져 있어서 성경 공부 시간이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한 선교사 가정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분들이 총회 주일학교 교재를 집필하고 집필된 교재가 매 주일 쓰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학교 교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선교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교재가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1권 시리즈는 대덕교회, 2권은 수서교회, 3권은 대덕교회, 성도교회, 4권은 개봉제일교회, 수원온누리비전교회, 5권은 주안장로교회, 6권/예정 예빛교회)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도미니카공화국 복음 교단 총회 로고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로고가 표지에 있음으로 인해 양 교단 협력의 상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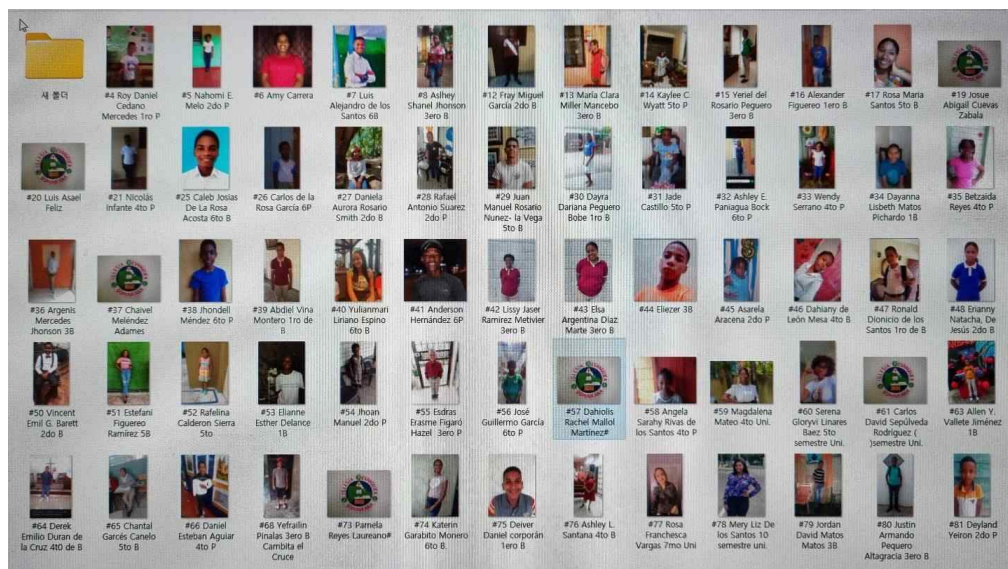
그리고 이 주일학교 교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5권의 사역이 양 교단의 협력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교재 사역이 가시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불가시적 프로젝트로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도미니카공화국 복음화를 위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재가 처음으로 출판(2015년 5월 7일)된지 벌써 7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학교 뿐만 아니라 총회에 속한 미션 스쿨의 성경 수업 시간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학교의 교재나 교회의 성경공부 교재가 너무 다양하고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 이북(e-book), 교육방송 등 다양한 교육 매체가 있지만,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지 여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교과서도 대물림하여 사용을 합니다. 학년이 시작하면 교과서를 무상으로 받고(사용하던 것) 학년이 마치면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주일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교재를 받아 사용하고 나면 그 교재를 미션 스쿨로 가져가서

성경 수업 시간에 사용합니다. 이 교재의 유용성은 한국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 주일학교 교재 5권 편집, 출판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장학위원회(위원장 장은경 선교사)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늘 선교소식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는 사역입니다. 지난 5월-6월 동안 총회 장학위원들께서 64명의 장학생들 최근 근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장학생들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아 보았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및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이 금년들어 총회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월 30일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를 위한 중보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총회 주일학교 교재 5권 출판을 위해서
2. 총회 장학위원회의 사역을 위해서
3. 네이바교회 건축 3단계 과정을 위해서
4. 아이티 도바(Tovar)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초 단계인 바닥공사를 위해서
5. 도미니카공화국 복음교단 총회창립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위해서

김종성 목사/ 장은경 선교사